



오방 최흥종

대의를 위해 사리사욕 버린 '영원한 자유인'

오방 최흥종 목사님은 광주 출생이고 1880년 5월 4일에 태어났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04년에 기독교를 믿게 된다.

1907년에 벨 목사로부터 복문안교회 최초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후 영종이라는 이름을 최흥종으로 바꾸고 거둬낸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1909년 교회 집사가 되고, 광주 제중원(현 기독교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1912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21년에 졸업했다.

이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오방 최흥종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은 어릴적에 부모님을 잃고도 기독교 목회자, 민족 독립운동가, 교육가(청소년 운동가), 구라 운동가, 빈민 운동가, 광주 YMCA 설립자, 정신적 지도자 등등 많은 일을 한게 대단하고 본받고 싶다.

대의를 위하여 사리사욕을 버렸던 목사님을 영원한 자유인으로 기억해야겠다.

/김시연 기자

광주출생

1880년 5월 4일 ~ 1966년 5월 14일

기독교 목회자

민족독립운동가

교육가(청소년 운동가)

구라 운동가

빈민 운동가

본명 : 최영종

광주 YMCA 설립자

정신적 지도자

즐거운 역사여행



광주용봉중학교 역사아 놀자, 또래 상담 학생들이 오방 최흥종 선생 역사신문을 만들고 있다.

오방 최흥종 인물소개

오방 최흥종은 고종 33년, 1896년부터 1907년까지 즉, 18세기부터 19세기에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오방 최흥종 독립운동가는 본인 아버지를 일찍 잃어서 불운했던 청년을 보내셨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시내에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흥종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최망치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언뜻 보면 강패의 일종이었습니

다. 그때 대한제국에는 한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센병은 사람의 피부가 썩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감염도 잘 되어서 사람들이 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온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도와주는 커녕 피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외국인이 달려왔습니다. 그 외국인의 이름은 "폴" 이었습니다. 그는 전염병도 무시하고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도와줬습니

다.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맡아 태우려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떨어져서 최흥종 독립

운동가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 지팡이를 주워가려고 했습니다. 최흥종 독립 운동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자식 돌보듯이 도와주네..." "그럼 난 뭐지?" 하고 생각하며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최흥종 운동가는 마음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최흥종 독립운동가는 그 후 한센인 요양병원 '여수에양원'을 만들고 한센병을 가진 환자를 평생 돌보았습니다. 전염성을 무시하고 손이 닳도록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소록도 확장을 주도하는 한센인의 아버지 최흥종이 목사 일대기입니다. 또한 1904 ~ 1905년 사이에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김운수와 함께 양림리교회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선교 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최흥종 독립운동가는 주로 항일 운동을 하였습니다. 생애와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분향은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 시절 신의 한수 독립운동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됐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운명이 존재하나 봅니다. 신의 한 수 한 수가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표 기자

최흥종 목사님을 기억하는 그림판



최흥종 3행시

최: 최고의
흥: 흥종의
종: 종소리
최순우 기자

최: 최흥종 선생님은 광주의 영광이셨죠
영: 영원하신 최흥종 선생님
종: 종말로 좋아합니다!
정다운 기자

최: 최라는 이름, 빛나는 길을 밟네
흥: 흥과 종과 함께 독립을 꿈꾸며
종: 종말의 끝이 올 때까지 독립은 영원하다.
김준표 기자

최: 최흥종 목사님을
영: 영원한 자유인으로 기억합니다.
종: 종일 조국의 독립운동과 가난하고 병든 동포를 위해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연 기자

최: 최흥종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영: 영원한 위인으로 남과 감사한 사람인 최영종 목사님!
종: 종일 최흥종 목사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만큼 항상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빈 기자

최: 최흥종 목사님의
흥: 흥미롭고 도전적인
종: 종말
신하울 기자

최: 최고였던
흥: 흥종씨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일제강점기가
종: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우람 기자

최: 최흥종이라는 사람에 대해
흥: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종: 종말 좋았다.
유현선 기자



최흥종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용봉중 2학년 1반 하빈
오방
최흥종
목사님